

몸의 언어로 오월의 기억을 잇다

광주여성가족재단, 12월1일까지 Herstory 공모전 선정작 전시 박화연·나지수·김연우 협업



광주여성가족재단 제4회 Herstory 기획전시 '말과 눈빛과 호흡과 움직임'전이 오는 12월1일까지 재단 3층 허스토리에서 열린다.

'몸의 언어로 기억을 이어가려는 이들의 현재' 전시실 입구, '눈빛, 말, 호흡, 움직임' 네 단어만이 적힌 전시 포스터는 커튼 너머의 전시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궁극증을 안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자 왼쪽에는 인간의 다양한 몸짓들이 담긴 액자들이, 오른쪽에는 무용가의 몸짓을 담은 영상이 틀어져 있었고 또 한쪽 핑크빛 동그란 조명 안에 담긴 인간 군상으로 표현한 무용가의 몸짓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80년 5월의 향정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발 딛고 살아온 터전에서 발생했던 저항의 힘을 찾으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몸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며 오월의 기억을 이어가려는 김연우(무용가·고(故)김영철 열사 막내딸), 향정으로부터 살아남은 이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지금'을 들여다보는 박화연 작가, 시대에 따른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인간군상으로 풀어어나가는 나지수 작가가 모여 5·18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미경)이 지난 21일부터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장 허스토리(Herstory)에서 선보이고 있는 제4회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 선정작 '말과 눈빛과 호흡과 움직임'전(12월1일까지)은 몸의 언어로 5·18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를 선보여온 박 작가와 나 작가는 평소 5·18 유족이자 무용가인 김연우씨와 함께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다. 세명은 태어난 시

기,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오월 향정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공통점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변화된 관계를 포착하며 오월 향정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억의 방식들을 모색하고자 전시를 기획했다.

박 작가는 거대한 역사 안에서 현재 우리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역할들, 감각들을 꺼내어 나누어 보는 공간의 장을 제공하고자 영상을 제작했다. 24분짜리 영상의 제목은 '숲속에 풀잎이 있다'로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배경으로 김 씨의 몸짓을 스크린 안에 담았다.

나 작가의 수묵드로잉 '희미하지만 잊혀지지 않는'과 '외롭지 않은 봄'은 12×12cm크기의 액자 32개로 제작돼 전시실 왼쪽 벽면에 나란히 걸려 있다. 나 작가는 표면적으로 정박되어 있는 역할이 아닌 그녀(김연우 무용가)를 포함한 동시대 여성이 가진 다중적인 모습을 회화로 포착했다. 또 광

목에 수묵으로 작업한 '癰疽(갈증), 炎症(염증), 憂症(애증)'은 여성의 신체(몸짓)를 통해 발견되어 온 애도의 경험을 좇으며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발굴한 것들을 나타낸다.

한편 오는 11월 12일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연우 무용가와 함께하는 무용 체험 프로그램으로, 평소 무용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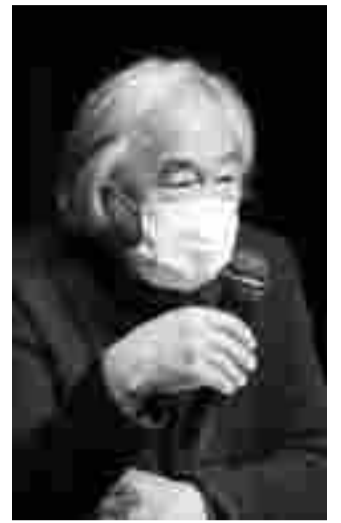
박화연 작가는 전남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개인전 '간직하고 싶은 순간' 등에 참여했다. 나지수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한국화전공을 수료했다. 기획전 '관계의 초상' 등에 참여했다.

전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과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63.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윤정희 동생 연주료 21억 횡령이 사건 발단"

백건우, MBC 'PD수첩' 허위 주장 손병욱 "여론 호도위해 재산 제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백건우는 지난 25일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아픈 당사자(윤정희)를 간호하는 딸 진희입니다. 딸에 대한 억지와 거짓의 인신공격은 더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75·사진)가 2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 윤정희(77·본명 손미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지난 9월 7일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을 통해 백건우 부녀와 윤정희 동생들 사이에 불거진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백건우는 "지난 여름 윤정희의 형제와 'PD수첩'은 윤정희가 사는 집에 찾아가 취재하며, 윤정희가 방치됐고 가족들에게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정희 형제·자매들이 청와대 계사관을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왔지만 영하배우 윤정희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윤정희는 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백건우의 법률대리인인 정성복 변호사(법무법인 청림)는 백씨의 딸이 윤정희와 동생들 접촉을 막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 고등법원이 윤정희가 동생들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딸이 후견인 권한을 남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정희의 첫째 동생) 손미애씨가 백씨 계좌에서 21억원을 무단 인출한 사건에 대해 어제(27일) 영등포경찰서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1980년부터 백건우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해왔는데 잔고 내역을 속이며 총 21억여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주장도 됐다. 윤정희 방치설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주 2~3회 방문하고, 간호사도 두세 달에 한 번 방문한다. 간병인이 있으며 저녁 이후에는 세입자가 돌봐주며 딸도 매일 돌봐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넷째 동생 손병욱씨는 27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백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1억원이 무단 인출됐다는 백건우 주장과 관련해선 "그런 큰돈이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손미애에 따르면) 백건우가 1년에 3~4번 한국에 올 때마다 유로화로 바꿔 프랑스로 가져갔다고 한다"며 "백건우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이날 SNS를 통해 "현재 백건우 부녀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제한적이었던 윤정희와의 통화와 만남도 완전히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악과 재즈가 만나다

순수 29일 시즌 두번째 공연

'국악과 재즈의 만남'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온 '순수'가 오는 29일 오후 7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홀리온(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2021년 시즌 두번째 공연을 진행한다. 광주문화재단의 202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이영애(사진)가 출연해 드럼 원익준, 피아노 김성수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가야금병창 이영애는 박귀희 선생을 사사하며 가야금병창과 판소리를 익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민요, 단가(短歌), 판소리 일부 대목 등을 재즈 반주에 맞춰 가야금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순수'는 지난 8년 동

안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유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으로 양림동 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매 공연마다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해 문화, 역사 체험을 함께 제공해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 공연 옛 나누역서 30일 열린다

1929년 10월30일 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된 옛 나누역에서 제 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기념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옛 나누역 대합실에서 제13회 나주학생독립운동 현정음악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첼리스트 김창현과 이보라가 첼로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연주하며, 이보라의 독주곡으로 김선철의 '엄마야 누나야'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연주된다. 또 오페라 '무동동중' 중 '어느 구두닦이 소년의 죽임' 등을 문세민 양(송원초)이 노래하며, 시 낭송가 노경호는 전숙 시인의 현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낭송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정아 낭독콘서트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음악가 편지 11월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작곡가가 남긴 글과 곡을 통해 그들의 삶과 예술성,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아(사진)의 낭독콘서트가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김정아 피아노 독주회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IV'가 오는 11월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남긴 말과 글, 편지 속의 이야기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을 시작으로 슈베르트, 브람스 이어진 기획 시리즈 네 번째 순서다.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환상곡 K.397', '아다지오 K.540', '룬도 K.511', '소나타 K.545-K.570' 등과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를 리스트가

편곡한 곡으로 들려준다.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라는 주제로 지난 2018년 낭독콘서트를 처음 시작한 김정아는 다섯 번째 이야기로, 쇼팽의 삶과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주)스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p>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p>법무사 황영수 사무소</p> <p>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당배락빌 소송·민사집행·민사신청·공탁·가사·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p>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p>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p>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p>면쟁이</p>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자도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p>무크 광주세정점</p> <p>광주시 서구 삼부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쁜 스타일의 가을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p>다흥치마 한정식 전문</p>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p>해미패션</p> <p>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p>인첼(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주)K&J컴퍼니</p> <p>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제테크, 신재생에너지 제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p> <p>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p>
<p>송가네 반찬</p> <p>광주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p>한국기원</p>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